



오늘의 주요기사

2023 4 10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04	委	“	”		1
강원도민일보		"28		" 3 . 3	...	2
江原日報	15			.		3
江原日報	11					3
江原日報	01	[	]	10	.	4
江原日報	15			‘	’	5
江原日報	04			, ‘	’ KBS	6
東亞日報	05	“		,	” ...	7
東亞日報	16A			-		8
강원도민일보	02	"			"	9
강원도민일보	28	[	]			10
강원도민일보	28	[	]			10
강원도민일보	18					11
江原日報	01					11
강원도민일보	16					12
江原日報	10					12
강원도민일보	04				...	13
강원도민일보	23	[	]		가	14
강원도민일보	23	[	]		가	15
江原日報	19	[	]		,	16
江原日報	19	[	]	9 5,000	,	17

江原日報

2023 04 10 ()

04

도학교운영위 조례 개정 “자율성 침해” 반발

도의회 12일 통과 여부 심의
‘도교육감 소속 편입’ 등 신설
내부서 “심의·자문 기능 외면”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위)를 도교육감 소속으로 편입하고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학운위 내부에서 ‘자율성 침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일 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조례 통과 여부를 심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협의회 설치 및 기

능을 규정하며 ‘학운위를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다’는 조항이 신설됐고, 협의회 구성 규정을 통해 학운위 회장직을 학부모 위원이 맡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으로 구분되고 지금까지는 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지역위원도 학운위 회장을 맡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학운위는 이 같은 조례 개정 시도를 놓고 “학교 활동을 심의·자문해야 하는 조직 기능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운위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자치기구이자 독립된 심의기구 성격을 갖는 만큼 협의체인 학운위 역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운위는 “학교 교육 발전은 지역사회도 주체가 돼야 하는데 지역위원을 배제하고 회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영태 학운위 부회장 등은 지난 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학운위 운영과 관련해 앞서 지역위원의 관행적 연임, 무자격 임원 논란 등이 불거졌고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이 이를 예방하는 장치로 마련된 점을 토대로 도의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 교육위 의원들이 견해를 공유하고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

강원도민일보

2023 04 09 ()

"28년전 지역을 지킨 선배들께 감사와 존경" 3·3주민운동 제28주년 기념식 개최

유주현



▲ 정선 3·3주민운동 제28주년 기념식이 최근 사북읍 뿌리공원에서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과 최경식 3·3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한 이철규 국회의원,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장,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역대 공추위원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최근 사북읍 뿌리공원에서 3·3주민운동 제2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이철규 국회의원,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장,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배왕섭·전광표·송수옥·조현화·김영덕 정선군의원, 천웅 정암사 주지스님, 최경식 3·3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강신열 정선군체육회장, 역대 공추위원장, 지역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행사는 28년 전인 '1995년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당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지역경제 몰락 위기에 놓인 고한읍, 사북읍, 남면 등 정선 탄광지역 주민들은 지역을 지키기 위해 상가를 철시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채 햇불시위를 하는 등 생존권 사수 투쟁을 펼쳤다.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제정을 약속받았다. 폐특법은 강원랜드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됐다. 공추위는 이날 당시 상황을 짧게 재연한 광부덕 공연과 감사패 전달, 국악신동 선정인양과 가수 지원이의 축하공연 무대도 마련했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매서운 북풍한설 몰아치던 28년 전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지역소멸이라는 풍전등화 앞에서 지역을 지킨 선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영광으로 세워진 강원랜드가 지역의 미래까지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과오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최승준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랜드 글로벌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3·3주민운동은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는 지역주민의 애절한 목소리였다"며 "강원랜드가 설립목적에 맞게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ohyun@kado.net

江原日報

2023 04 10 ()
15



정선소방서 의소대장 합동 이·취임식 정선소방서(서장:최영수)가 주관한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이 지난 7일 청내 3층 대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장, 김기철 도의원, 지역 의용소방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4 10 ()
11



그린리더 환경자원봉사단 발대식 그린에코 교육센터가 주관하는 '그린리더 환경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지난 8일 원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박정하 국회의원과 원강수 시장, 최재민 도의원, 그린리더 시민봉사단, 학생,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4 10 ()

01

알립니다

강원특별법 범도민 릴레이포럼

영서 10개 시·군, 특별도 비전 모색

12일 오후 2시 강원대 미래도서관 정강홀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18개 시·군의 역량을 결집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릴레이포럼’을 개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두 달을 앞두고 강원도 전역의 붐업과 함께 오는 19일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영서권 10개 시·군이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상을 모색합니다. 강원일보는 지난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포럼을 연중 개최하며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전국적인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영서권 시·군 주도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마련을 위한 도민의 의지를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시대 영서지역의 변화상을 예측해 보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에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4월12일 오후 2시

◇장소 : 강원대 미래도서관 정강홀

◇발제 :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종합토론

△좌장 : 최병수 강원특별자치도 자문위원(강원일보 전무)

△토론 : 박대현 강원도의원, 안동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이동기 강원대 평화학과 교수, 최영재 춘천시 교육도시위원장,
박성빈 연세대 정밀의학과 교수, 김영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장

■주최 : 강원도·춘천시·원주시·홍천군·횡성군·평창군·철원군·
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강원일보

江原日報

2023 04 10 ()

15

평창군민들이 만든 ‘철쭉 꽃대궐’

평창강 일대 식재 행사 열려
150여명 참가 8천그루 심어

【평창】“평창군민들이 만든 철쭉 꽃대궐 감상하러 오세요.”

평창읍 철쭉봉사회가 식목일을 맞아 지난 8일 평창강 주변에 철쭉 심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심재국 평창군수, 지광천 도의원, 김성기·박춘희·이창열 군의원, 허진대 평창읍변영회장, 김성원 평창읍주민자치위원장, 권혁수 평창읍장 등 민·관 단체장과 도의원, 군의원을 비롯, 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8,000그루의 철쭉을 심었다.

2020년에 출범한 철쭉봉사회는 평창강을 끼고 도는 장암산 일대를 철쭉 꽃동산으로 만들기



◇평창읍 철쭉봉사회(회장:김재진)는 지난 8일 식목일을 맞아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사회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창강 일원에서 철쭉 심기 행사를 가졌다.

위해 2021년 4만그루의 철쭉을 심은 데 이어 2022년 7만그루 등 지난 2년 동안 11만그루의 철쭉을 식재하고 가꿔 왔다.

회원들이 심은 철쭉은 해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꽃망울을 터뜨리며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찾는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읍

의 자랑인 장암산과 평창강을 따라 약 13만그루의 철쭉꽃이 활짝 피어 펼쳐지는 장관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주민들의 정성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철쭉 심기에 함께 동참하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상원기자

江原日報

2023 04 10 ()

04

김 지사, ‘산불 때 골프’ 보도 KBS 기자 고소

“악의적 허위 보도 명예훼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때 골프를 했다’고 보도한 KBS 취재기와 보도 책임자를 9일 경찰에 고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와 보도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 (3월31일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다는) MBC 보도 때는 이유 불문 사과했었지만,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 4월7일 KBS 보도 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KBS 보도 중 ‘(3월)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제목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기사를 보는 사람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테지만,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이라며 “골프연습장

은 토요일 오전 7시에 방문했고, 산불이 난 것은 9시간 뒤인 오후 4시 38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KBS는 최초 보도 이후 무려 일곱 번이나 기사를 수정했고, 이는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미 첫 기사로 인해 심각하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또 3월31일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진상을 알면 달라질 것이며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언론에 재갈을 물려도 산불 때 골프연습장과 술자리의 사실은 감출 수 없다. 김진태 지사는 KBS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는 논평을 내 김 지사를 비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東亞日報

2023 04 08 ()
05

“김진태, 산불때 술자리”... 김기현, 조사 지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어 또 논란
與 “사실 확인땐 책임 물을것”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가 지난달 31일 강원 홍천 산불 진화 작업 중 골프 연습장을 찾은 뒤 개인 술자리까지 가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기현 대표가 당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다. 여권 내에서는 “최고위원들의 구설에 도지사들의 논란도 더해지며 당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7일 “김 대표는 금일 중앙당 당무감사실을 통해 (김 지사 관련) 보도 내용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지사가 지난달 31일 강원 지역 산불 발생 당시 골프 연습을 한 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는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던 중 업무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골프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져 사과를 했는데, 이후 술자리에 간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것.

이에 대해 강원도는 만찬 시간이 산불이 진화된 당일 오후 6시 1분 뒤였다고 밝히면서도 술자리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정 자문을 구하는 자리였다”면서 “(김 지사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강원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논란이 당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제천 산불 현장에 가지 않고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각종 악재가 쌓이고 있다”고 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 역시 “(여당 소속 도지사들이) 어떻게 당을 이렇게 안 도와줄 수가 있느냐”며 “사실 관계가 맞다면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buzz@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

東亞日報

2023 04 10 ()
/ 16A

강원도-강원대 손잡고 신성장동력 확보 나서

‘대서양연어 스마트 양식’ 업무협약

고부가가치 산업인 대서양연어를 강원도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원도와 강원대가 손을 잡는다.

강원대 LINC3.0사업단과 농업생명과학대,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13일 강원대 미래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대서양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산업화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3월 도 환동해본부가 대서양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산업화를 위해 강원대를 비롯한 도내 주요 대학들과 공동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구체적인 실질적인 차원의 협약이다. 이번 협약에는 어린 연어의 내수면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을 비롯해 동물 사료 개발, 부산물을 이용한 신물질 연구, 전문 인력 양성 등 단계적인 협력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곤충을 활용한 사료 개발 및 산업화, 연구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스마트 양식 스몰트(Smol t·바다로 가는 2년생 연어) 단계 질병 백신 개발 협력, 학생의 특화 교육 지원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이 담겨 있다.

대서양연어는 글로벌 시장 규모 60조 원, 지난



강원 양양군 현북면에 조성 추진 중인 연어 양식산업단지 조감도. 강원도 제공

해 국내 수입량이 7만6000t(약 7300억 원)에 달하는 신성장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15년부터 양식 기술 확보에 노력해 어린 대서양연어 대량 생산에 성공했고, 본격적인 성어(5~8kg) 생산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일대 11만 6818㎡에는 대서양연어 양식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는 ㈜동원산업이 케이스마트양식주식회사를 설립해 추진 중으로 올해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양식산업단지는 이르면 8월 착공해 내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르면 2025년 본격

적으로 대서양연어를 출하해 연간 2만 t을 생산할 계획이다.

최성웅 강원대 LINC3.0사업단장은 “강원도의 K연어 사업이 공동 업무협약에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강원도 수산업 발전을 이끌어 내고, 미래 고부가가치 융합바이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민일보

2023 04 10 ()
02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향한 첫 걸음” 특별자치도법 개정 촉구 서명 확산

본지 주관 메시지 게재 각계서 참여
강릉시의회·굿리더 총원우회 동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범국민 서명운동이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하는 강원특별법 전면 개정 촉구 도민 결의 메시지 게재에 도내 각계각층이 참여를 약속하는 등 강특법 개정안 조기 입법을 촉구하는 여론 결집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본사 임직원에 이어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강릉시의원들은 “강릉시의회 의원들은 강원특별법 전

면 개정을 촉구한다”며 도민 결의 메시지를 본지에 보내왔다.

김 의장은 “새로운 강원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향한 첫 걸음! 강원특별법 전면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또, 강원도민일보 굿리더 총원우회 회원들도 도민 결의 메시지 게재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강특법 개정안 조기 입법 촉구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각 시군의회의, 강원도와 각 시군역시 도민 결의 메시지 게재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온라인 서명운동 열기도 뜨겁다.

강원도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온라인 서명운동 (<https://gs.gwd.go.kr/gws>)을 펼치고 있다. 9일 현재 1만 여 명이 서명했다. 또, 화천군도 온라인 서명운동 (<https://gs.gwd.go.kr/gws/onlineSign>)을 진행 중으로 접경지역의 거미줄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박지은 pje@kado.net

▶도민 결의 메시지 28면



강릉시의회 의원들은 강원특별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새로운 강원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향한 첫 걸음!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면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의장 김기영	대한민국의 미래 강원특별자치도, 법 개정없이 미래는 없다. 부의장 배용주			
강원도민 힘을 모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반드시 이룩하자. 의원 윤희주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즉각 통과를 촉구합니다. 의원 김진웅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합니다. 의원 김용남		
실효성 있는 특별자치도법 개정하여 강원도 발전 앞당기자. 의원 조대영	강원자치특별법 개정에 실질적 권한과 재량 확대를 촉구한다. 의원 최아순	대한민국 자치 완성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완성으로! 의원 허병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해 75년 화성에 응답하라! 의원 김영식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만이 강원도가 발전하는 길! 의원 김은숙	특별법 개정으로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도약하자! 의원 김홍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원동력 강원특별자치도법 의원 이용래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초석은 '강특별' 전부개정안 통과로부터! 의원 김현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강원도민의 열렬한 희망이다. 의원 김문섭
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열쇠 '4대 핵심규제' 해소하라. 의원 권순민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은 특별법 개정이 정답이다. 의원 서정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진심을 재는 척도는 곧 법 개정안입니다. 의원 박경남	반세기 동안 묶인 강원도, 특별법으로 자유롭게! 의원 홍정완	희생 말고 희망 주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촉구 의원 신보금



강원도민일보 굿리더 총원우회 회원들은 강원특별법 즉각 전면 개정을 요구합니다!

강원의 미래 손안의 미래, 꿈꾸는 강원으로의 도약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춘천A+에셋 이진희	강원특별자치도, 성공기원. 강원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강원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센터장 이은숙	강원도, 인구증가 해야한다. 금강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금성	계획과 실현은 논리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인들이 되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빠른 통과를 기대합니다. 세종이앤씨 이사 한상권		
남만과 문화의 중심 강원도를 살리자. 서은정	특별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주)농업법인 허투에 한도 대표이사 김재훈	오월 세월이 흐르고 가려져 강원도민 속엔 더 이상은 머무지 않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희망합니다. 김의정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우리의 미래다. (주)춘천하이오산업진흥원 본부장 안용조		완전한 자치! 빠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촉구합니다. 춘천시청 객해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하라. 한국은행 강원본부 부장 정홍택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강원특별자치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영건설 대표 김원화	강원특별자치법이 하늘이 아닌 실속과 세부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배이커리 팩토리 대표 최성락	자치분권 균형발전 즉각 실행하라 (주)육성산업건설 대표이사 손승현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화재분석팀장 천정덕
각종규제해소와 과감한 전환 이양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춘천시청 최인숙	바위에 얹어놓은 높은 부채같은 강원도가 내부적으로 용해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청 중대산업채무조정 강명직	특별자치도에 출범을 자축하며 발전전 모습으로 완성하자. 이문자	새로운 강원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주)대성세이프티 이사 윤건영		강원도를 특별하게, 특별법을 특별하게, 개성을 뽐내는 강원도 평창군 공공건축팀장 박경섭
일일 생활권의 중심지로 평화 김미경	순수한 강원도인 정채에 달라왔다. 실질적인 특별자치 즉각 실행하라. 영일세무법인 대표 원영일	배려와 소통으로 극복되는 실천하는 특별법 요구한다! (주)북원산업 대표이사 유기창	무늬만 자치도를 주지 말고 확실한 자치도를 달라. 월드인테리어 대표 김준식		가난한 사람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길포마켓이케이 대표 이서우
우리나라 지키는 강원도를 보호하라 평창군청 도서관팀장 김명진	그대여~ 시대적 사명감을 강원특별자치도 전면개정론이다. 대일이앤씨 실장 김한울	진정한 자치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강원도민일보 원주본부 기자 홍상우	특별자치도 성공을 기원합니다. 오농바이오 대표 권오준	컬레기만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태산 건설 중기 대표 김일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즉각 실행하라! 형성건설 팀장 홍기영	내실있는 특별법 개정으로 도민 대강행 특별자치도 실행하라! 원주시청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우리가 앞장서서 정취해야 한다. 원주시 흥창회	지역개발을 위한 국제 화와 이루어 도민에게 게 희망을 줘야 한다. (주)에스엔건설 대표 이주용	저와 평화의 차이는 특별자치도인 것입니다. 세종시청 본선도, 강원도/서울과 평화, 가치관 강릉시의회 행정전문위원 김현경	
강원도 특별법을 촉구하는 바 국회는 적극적인 특별법을 개정하라!! 케이엠네이처 전무 이영선	산림수도 강원도 특별자치도로 치우려 강원도민은 감자만 먹고 사할을 건다. (주)그린스워드 대표이사 최성용	균형발전으로 제2의 강원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권순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주)도형산업 대표 임준식	이름만 특별이 아닌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즉각 개정하라! 삼양식품 관리팀 김현석	
빠르고 확실하게 행보합니다. 특별자치도민이~ 북강릉서비스이오도유 대표 이종철	더불어 상생하는 강원도민에게 행복합니다. 자영업 대표 주연희	실효성 있는 특별자치도법 개정하여 강원도 발전 앞당기자. 한화생명영리 심미선	특별자치도로 다인과 소외되는 강원도, 강력하게 밀어주세요. 한화생명영리 심미선	강원도민이 자유와 행복은 산골마을에서부터 시작된다. 한라산엔트 안전보건경영실장 황 현	
강원도의 미래는 특별자치도 뿐입니다. 삼척시청 건축과장 박경만	강원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무늬만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강릉관광개발공사 팀장 조규만	강원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연세유치 강릉대표 김형남	중앙권한을 즉각 포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하라! 동해시청 북경동장 장병중	새로운 출범을 응원하고, 한단계 성숙해진 모습으로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동해시청 북경동장 장병중	
강원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파이팅! 정은엔텍 대표 김재철	규제-낙후-상징 강원도 특별법만이 살길이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장 김남수	■메시지 신청방법 -본사 홈페이지(kado.net) 모바일 앱 QR코드를 통해 즉구-결의 메시지함을 20자 이내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메시지는 신청일 이후에 함께 실행됩니다. 기관이나 단체는 양자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제비용은 즉구-결의 메시지 각각 5만 원씩입니다. -입금계좌: 농협은행 303-17-000695 예금주: 강원도민일보 *메시지 성급 중 일부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 촉구 관련 캠페인 경비를 사용되며, 개제된 메시지는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기록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택 강원도 특별자치도! 삼척시청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이름만 특별? 환경, 군사,농지,산림,물 이용 규제 적극 개혁하라.				

강원도민일보

2023 04 10 ()

18

화천군 강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 돌입

13일까지 주민·기관 대상 진행
결의문 통해 4대 규제 개선 강조
노인·새마을회 등 적극 동참



화천군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화천군은 지난 8일 화천전통시장 5일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장을 보러온 주

화천군은 지난 8일 화천 전통시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민들이 적극 참여해 서명했으며 화천군 노인회와 화천군 새마을회도 동참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바라는 군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표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13일까지 주민과 지역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또한 온라인 (<https://gs.gwd.go.kr/gws/onlineSign>)을 통해서도 서명운동을 펼쳐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알릴 예정이다.

군은 이번 서명을 위해 작성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20세기 강원도는 안보와 경제, 환경, 수도권·중부지역 전력과 용수공급 등 국가적 목적을 위해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희생해 왔으나,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희망과 달리 규제개혁과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 양이 빠진 빈껍데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국회에 산림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핵심규제 개선과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우리 화천군민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인 화천군 입장에서 4대 규제 개선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의호

江原日報

2023 04 10 ()

01

강원특별도 성공 머리 맞대는 여야

오늘 본보 특별법 개정 지원 국회포럼
김기현·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총출동

강원도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강원일보가 10일 오후 3시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두 달을 앞두고 붐업을 위해 마련됐다. 오는 19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

두고 입법 전략 등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에 초당적으로 힘을 보탠다.

또 18개 시·군과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강원

도민회 등에서 대거 포럼에 참석,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강원의 힘'을 모은다. 이어 한영한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강호상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산학협력교수, 양철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재형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군사, 환경, 산림, 농지 등 4대 핵심규제 완화 특례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윤준호 국회의원 보좌관, 최병수 강원특별자치도 자문위원(강원일보 전무)이 패널로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비전 등을 논의한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4 10 ()

16

영월 상동고에 국내 첫 공립야구고 설립 추진

학생수 감소 폐교위기 맞아

오늘 교내서 설립추진위 발대

전입 유인 6월 야구단 창단 목표

전 롯데감독 총감독 선임 예정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영월 상동고에 국내 최초 공립 야구고 설립이 추진돼 향후 결과에 주목된다.

1953년 개교에 이어 1984년 공립으로 전환돼 지난해까지 총 3437명의 졸업생 배출하고 올해는 1명에 그친 상동고는 2년 연속 신입생이 전무한 데다 현재 3학년에 3명 학생만 남아 있는 초미니 학교로 전락했다.

이에 상동을 주민들과 동문들이 “지역소멸 위기에 따라 모교가 사라지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으로 참여해 가정 상동야구고 설립추진위원회(회장 이운식 상동초·중·고 총동문회장)를 구성하

고 10일 오후 2시 모교체육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

발대식에는 최명서 군수와 심재섭 군의장, 정민승 교육장, 김성수 군체육회장, 김길수 강원도야구소프트볼 협회장, 김응용 전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추진위는 양승호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을 총감독으로 선임할 예정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감독과 코치 등을 선임하고 전입생을 유인해 오는 6월 야구단 창단을 거쳐 2024년 3월 야구

고로 재탄생한 뒤 신입생을 모집할 방침이다.

앞서 신경호 도교육감은 지난 3월 초 군체육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야구고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운식(63) 위원장은 “폐교 예정인 상동고를 야구고로 개교하기 전에 우선 야구단 창단 활동을 본격화 해서 야구 스포츠 과학 특성 교육 고등학교로 거듭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기준 kjbang@kado.net

江原日報

2023 04 10 ()

10

춘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탄력

부지 매입 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여야 의원들 한마음 승인·시 집행부 의원 직접 설득 성과

【춘천】속보=지역 현안인 춘천시 지방정원 조성 부지 매입 계획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본보 지난 6일자 10면 등 보도)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회가 정파적 이해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이 된 결과라는 평가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춘천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과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등이 포함된 공유재

산관리계획안을 찬반 토론 및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등이 가능해지면서 춘천시는 강원도 공모사업 선정을 앞두고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

‘춘천호수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춘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허영 국회의원과 육동한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하지만 한기호·노용호 국회의원까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심의에 앞서 안건 통과를 원하는 지역 여론이 시의회에 전달됐고, 시 집행부에서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까지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안건이 통과된 이후 육동한 시장, 허영 국회의원 등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상임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경모 시 녹지공원과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춘천이 호수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지방정원 조성 이후 호수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을 위한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표결 끝에 수정 가결됐다.

강현정기자 hyu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4 10 ()
04

꽃망을 대신 서리꽃... 시작도 전에 벚꽃엔딩

봄비·꽃샘추위에 축제 준비 골머리

주말 사이 강원도내 곳곳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린 탓에 벚꽃축제를 준비하던 지자체와 과수 농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일 도내 주요지점 오전 5시 기준 최저기온은 철원 김화 -4.8도, 화천 광덕산 -4.7도, 횡성 안흥 -3.8도, 홍천 서석 -3.7도, 평창 면은 -3.4도, 평창 진부 -2.7도, 삼척 하장 -2.6도, 원주 부론 -2.5도를 기록했다. 게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았다. 기상청은 이번 꽃샘추위는 북쪽의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찬 바람이 유입되면 기온이 내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부터 내린 갑작스러운 봄비에 이어 곧바로 꽃샘추위까지 찾아오며 벚꽃축제를 계획하던 춘천시 북산면이나 도내 곳곳 과수 농가는 관람객 유치와 냉해 방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춘천시와 북산면 벚꽃축제 위원회는 당초 10일~16일로 예정돼 있던 제1회 북산면 벚꽃축제의 일정을 8일~14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파로 인해 벚나무 가지가 피해를 입어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 상황에서 주말 사이 꽃샘추위까지 이어진 탓에 개막 첫날 관람객이 크게 줄었다. 주최 측이 추산한 개막 첫날인 8일 북산면 벚꽃축제 관람객은 약 1000명이었다.

홍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허성호대흥복숭아연구회장도 이번 꽃



도내 곳곳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를 보인 9일 홍천군 서면 모곡리의 한 밭에 서리가 내렸다. 김경식 객원기자

샘추위로 인해 꽃눈이 피해를 입었다.

허 회장은 “복숭아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데 이번 꽃샘추위로 인해 서리가 내리면서 꽃눈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원주 흥업면에서 사과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병석(67)씨도 “평년보다 일주일이나 개화가 빨리 진행된 상황에서 서리가 내리니까 꽃눈이 냉해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우려했다.

한편 당분간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는 등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기상청은 10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의 경우 영서 1~5도, 영동 11~12도, 낮 최고기온의 경우 영서

18~21도, 영동 19~23도로 예보했다.

특히 오는 11일까지는 이동성고기압과 북쪽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기온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 04 10 ()
/ 23

지역상품권 혜택 골고루 돌아가야

-시군별 인구대비 발행액 격차 심해 보완책 마땅

강원지역에서 가장 많은 36만여명의 인구를 보유한 원주시의 지역상품권 발행액이 강릉에 비해 2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지역상품권 발행액 규모가 시군 사정에 따라 1인 평균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른 혜택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대형 쇼핑몰과 인터넷 상거래에 밀려 침체한 골목 상권과 시장을 살리며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고 있는 지역상품권 혜택을 골고루 돌리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청됩니다.

원주시의 연간 지역상품권 발행액 예산은 700억원입니다. 4만6000여명인 횡성군 발행액은 원주의 절반 수준인 300억원에 달합니다. 원주시민은 횡성에 비해 1인 평균으로 따지면 3배 이상 낮은 발행액입니다. 21만여명의 강릉은 원주보다 2배나 더 많은 올해 1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릉은 월 평균 100억원 넘는 규모로 발행하는 셈입니다. 원주는 700원에 지나지 않다 보니 설과 추석 등 명절이 낄 때는 100억원 정도이지만, 나머지 달은 5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주는 워낙 발행액이 적다 보니 매월 판매 개시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소진돼 시민들이 짜증내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주는 인구 대비해 적은 액수인데도 올해 50억원 증액에 그침으로써 시민의 경제서비스 욕구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춘천은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올해 260억원을 증액해 확보했으며, 강릉도 100억원을 더 늘린 것을 비교할 때 안이하게 비칩니다. 원주변영회측은 고물가 시대에 상가와 소비자 모두 반기는 지역상품권이 인구와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발행액 확대는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상품권 인구 대비 발행액 규모가 시군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1인당 구입 한도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춘천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지만, 원주는 3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별 최대 한도액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데다가 경기 불황인 시기에는 단 5%, 10% 할인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지역상품권 정책이 열악한 지방 재정이 아닌 국비에 영속 반영되도록 하는 지자체 노력과 시민에 대한 고른 혜택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정유통을 비롯한 이상 거래가 맹점 분석 등 감시제도가 촘촘해야 하고, 위반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4 10 ()
/ 23

산림엑스포 경제 가치에 초점을

-대한민국 산림 수도 자리매김, 산업 창출 중요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9월 22일부터 한달여 동안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과 인근 속초, 양양, 인제에서 열립니다.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산림의 역사와 문화, 생태, 환경 등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산림 분야 엑스포로 국내외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류와 산림의 공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모색하는 시간 이 될 전망입니다. 도내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강원도가 산림 자산을 활용해 미래 비전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산림 수도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엑스포 개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봄철 산불 우려를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1년 4개월 연기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산림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며 강원도의 산림 가치를 알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며, 강원도는 전체 산림면적의 22%를 차지합니다. 일제강점기 산림 수탈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울창한 산림을 만드는 등 노후가 풍부합니다. 특히 대형산불 후 복구 활동은 소중한 경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연간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는 산림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역사, 문화, 생태, 산업 등 산림 전반을 주제로 전시와 체험행사, 다양한 이벤트 행사, 공연을 마련합니다. 5개 주제별로 꾸며진 전시관에선 세계산림엑스포의 비전을 엿볼 수 있으며, 어린이 동화 뮤지컬, 트로트 콘서트, 발라드 콘서트 등 특별공연이 진행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행사는 기후 위기 시대의 유일한 해답인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산림과 환경을 주제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는 학술행사가 여러 차례 열려 산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엑스포가 거시적인 담론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산림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합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관광, 휴양, 레저 산업과 연계할 국내외 성공 사례 분석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04 10 ()
/ 19

해빙기 잇단 낙석 사고, 급경사지 전면 점검을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으로 인한 사고는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도내 곳곳에서 낙석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쏟아져 내릴지 모르니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 5일 오후 3시12분께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의 한 국유림에서 지름 1m 이상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져 인근 민가를 덮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외벽이 파손됐다.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위험천만한 곡에 운전을 한다. 6일 오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에서 서천리를 잇는 2차선 도로 곳곳에는 바로 옆 급경사지에서 떨어진 지름 30cm 이상의 돌과 흙들이 나뒹굴었다. 운전자들은 도로 중앙까지 침범한 낙석을 발견하고 속도를 급히 줄이기 일쑤였다. 일부 차량은 돌덩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봄철을 맞아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전면 실태 조사를 벌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해빙기마다 반복되는 낙석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강원도 내 도로의 경우 특히 절개지가 많고 경사가 심해 위험도가 높다. 관리 당국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에 빈틈이 생겨선 안 된다. 설마 하는 방심이 돌아킬 수 없는 희생을 불러오는 것이 보통이다.

낙석 사고 차단을 위한 홍보도 시급하다. 낙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자연발생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있다. 자연 낙석은 바위 틈새에 얼어 있던 눈, 얼음 등이 녹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암석의 일부가 풍화 작용으로 응결력을 잃거나 태양의 복사열로 바위 표면이 팽창과 수축 작용을 하면서 생긴다. 폭우로 인한 용식 작용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자연 낙석은 해빙기와 우기에 많이 발생하며, 이런 시기에 협곡이나 산비탈의 퇴석지대, 암벽 위의 스크리(풍화퇴석) 등에서 행동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암벽 등반 중에 스크리 주변을 통과하는 사람은 로프의 흐름에 주의해야 한다. 하루 중 낙석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기온이 상승하는 정오 무렵이다. 낙석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한다. 낙석이 떨어질 때는 무조건 몸을 웅크릴 것이 아니라 돌이 떨어지는 방향을 확인한 후 몸을 피한다. 낙석 뿐만 아니라 등반 용구가 떨어질 때도 같은 요령으로 피해야 한다. 낙상 위험과 아울러 강가나 저수지 곳곳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안전 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경각심이 절실한 때다.

江原日報

2023 04 10 ()
/ 19

내년 국비 9조5,000억원 확보, 차질 없어야 한다

강원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9조5,000억원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에 나선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첫해라는 점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크고 기대감도 높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나누는 제로섬게임이다. 따라서 내년도 강원도의 살림살이가 달라질 수 있는 국비 확보는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도 출신 국회의원의 역량을 검증받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한 톨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주요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하다. 하지만 개인의 특출한 능력만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긴 힘들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물론 지역민과 출향인사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힘을 모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란 관점에서 역점사업을 재정리하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국비를 더 쟁길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 확보액 9조 183억원보다 4,817억원(5.3%) 증가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예년보다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을 발굴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설명이다. 강원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 육성과 'SOC'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판단에 따라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AI 등 첨단 분야의 신사업을 집중 발굴한다. 또 춘천~속초 철

도, 강릉~제진 철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춘천 소양8교, 동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주요 SOC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모두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현안들이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대응을 위한 국정과제 연계 논리를 개발하고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지자체의 국비 신청 기한은 4월 말까지다. 남은 기간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것 중 미진하거나 빠진 것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국

비 확보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공약이행과 SOC 사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국비 확보를 못 해 예산이 뒷받침되

올해 9조183억원보다 4,817억원 증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기대감 높아

지자체·국회의원 찰떡 공조 보여줄 때

지 않으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계획대로 예산을 가져오려면 기본적으로 그 유용성과 필요성을 해당 부처에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 핵심인사 방문과 실·국의 사업별 담당 실무진 설득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해야 할 것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지자체가 치열한 살바싸움을 벌일 것은 분명하다. 각 시·도가 전략적 맞춤형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만큼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도 치열할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와도 정치권의 찰떡 공조 체계는 가장 중요하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영된 예산을 지키고 증액하는 데 방심 없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